

## 신안 전복 어선 수색·구조 작업 4중고

심야 사고로 ‘가시거리 확보’ 조명탄 196발 발사  
 수온 6.7도에 ‘저체온증’ 위험 ↑ ...물살도 ‘결림’  
 얽힌 통발·격벽 구조에 막혀 선내 진입마저 난항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9명의 수색·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심야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해 조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고 낮은 수온과 거센 물살도 변수로 떠올랐다. 어선 내에 영겨있는 통발 3000여 개와 격벽 구조로 선체 진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께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24t급 근해통발어선(인전선척)이 전복됐다.

사고 직후 목포 해상관제센터(VTS)의 요청을 받은 상선이 선원 3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선원 9명(한국인 7명, 베트남인 2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해경은 사고 직후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현재까지 수색·구조에는 해경 합정 26척, 해군 합정 3척, 관공선 3척, 민간선박 2척과 해경·해군 항공기 8대가 투입됐다.

해경은 야간 수색에서 조명탄만 196발을 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시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구름이 낀 흐린 날씨로 사고 해상 주변의 물체 식별 최대 거리(시정)는 2마일(3.2

km) 가량이다. 해경은 실종 선원들이 주변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선체 내부에 물이 들어차면서 이동 지시가 내려졌다면 전복 직전까지 상당수 선원은 갑판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선박 전복 위치를 기준으로 동·서 15해리(27.8km), 남·북 15해리(27.8km) 해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조류·해류·풍속 등을 모두 고려해 점차 수색 범위를 좁혀갈 방침이다.

설상가상 현재 수온은 6.7도로 낮다. 장시간 바다에 표류할 경우 저체온증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먼저 구조된 선원 3명 모두 저체온증이 나타나 응급 처치를 받았다.

해경·해군과 민간 선박까지 총동원됐지만 물살도 큰 변수다. 사고 당시 물살은 유속 0.9 노트 정도였다.

해상 수색이 본격화된 이날 오전 2시 6분께에는 만조가 겹쳐 물살이 한때 거세지기도 했다. 비교적 바람은 잔잔하지만 조수간만 차이에 따라 물살이 거세지면 수색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해경은 전했다.

선체 내부 수색도 큰 진전은 없다. 서해해양경찰청 항공구조사·서해해양특수

구조대원 등 9명이 총 5차례에 걸쳐 수중 수색에 나서 선체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꽃게잡이용 통발 3000여 개가 선체 안팎에 뒤엉켜 있어 진로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실까지는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해경은 우선 어선이 다이아상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부력 유지를 돕는 리프트 백(Lift Bag)을 달았다. 좌현과 우현에 통발이 총 6개가 설치됐다. 침몰 속도에 따라 추가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해수면 위에 드러나있는 선체 바닥에 구멍을 내고 진입로를 개척하려 했지만 기관실(추진) 주변에서 이중 격벽 구조·동력 장비 등에 가로막혔다.

‘에어포켓’(Air pocket·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선체 내 일부 공간에 남아있는 현상) 내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경 구조대 15명이 뒤집힌 선체를 두드렸지만 이렇다 할 반응은 아직 없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고가 밤 시간대에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선내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며 “선체 절단을 통한 선내 진입도 여구나 이중 구조 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체 내부에 실종 선원들이 있을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선체 밖으로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민·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택주기자



### 이개호 의원, 3년만에 의정보고회 개최

이개호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지난 2월3일 오후 2시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대강에서 군민 과 기관단체,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소멸위기의 지방·농어촌을 살릴 제도로 주목받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비롯해 새로운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감 우수의원과 KBC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3선 국회의원으로서 무게감 있는 의정 성과를 소개했다.

야당 국회의원임에도 대형 국비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22년 한해 동안 역대 최다인 4개군 241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서·광주 임곡간 연결도로 개설 5억원 ▲부흥2교 소교량 위험시설 개선 5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5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다.

3일 장성군 의정보고회에서 이개호 의원은 ▲타당성조사 마무리단계인 국립심뇌혈관센터 및 국비 350억이 투입되어 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중인 아열대작물실증센터 등 국립기관 유치 성과, ▲지방도 734호선 광주 하남-삼계 광역도로 확포장, 국지도 15호선 도계-장성 건설사업, 지방도734호선 깃재터널 개설 등 지역 SOC 확충사업 ▲장성읍, 동화, 황동 등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농어촌환경개선을 위한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

### 장성군 발전 앞당길 국립심뇌혈관센터 국비 확보 등 작년 한해 동안 장성군 9개사업 57억원 특교세 성과 보고

를 배정받는 등 크고 작은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한 성과를 직접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2023년 국비예산으로 장성군 최대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예산 25억 원을 국회예산 심의 막바지 국적으로 반영시킨바 있다.

총사업비가 1,094억원으로 증액되어 타당성조사사업이 이뤄지면서 기재부가 결과 발표이후 예산반영을 검토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난항을 겪었지만 장성군과의 공동대응 및 정치권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설득으로 사업비 25억원을 반영시켰다.

이밖에 작년 한 해 동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장성호 상류 수변길 조성 6억원 ▲가족센터 건립 20억원 ▲장성 삼

주관 장성군 선정 사업등 그동안의 지역발전 위한 예산확보 성과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립심뇌혈관센터의 경우 오는 5월부터 이미 확보된 25억원을 투입,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장성에서 개최한 3년만에 의정보고회는 지방·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일한 동안 의정성과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여러 예산 확보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었다”며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장성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면서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국어 3등급’도 서울대 정시 합격 추정... “수학 변별력 결정적”

#### 올해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11점

올해 대학 입시에서 ‘수학 1등급’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학 성적이 우수할 경우 서울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에 국어 4-5등급을 받고도 정시 합격하는 학과가 상당수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정시에서 국어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 최초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학생은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2과목 각 2·3등급을 받았다.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에는 국어 4등급을 받은 학생이,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에는 국어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최초 합격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모두 수학에서 1등급을 받았다.

종로학원은 국어와 수학 점수 차가 2점에 불과했던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언어와 매체) 134점, 수학(미적분) 145점으로 격차가 11점까지 벌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올해 입시에서는 수학 고득점 학생이 국어 성적이 낮더라도 상위권대에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상했다. 국어뿐 아니라 탐구영역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수학 고득점으로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

2019년에도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50점, 수학 133점으로 17점 차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지방권 소재 의대 정시에 수학 4등급을 받고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고 종로학원은 전했다.

최이슬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감